

제 목	국 문	일부 농촌지역 주민의 혈중 콜레스테롤과 SAS(Self-rating Anxiety Scale) 과의 관련성		
	영 문	Relationship between serum cholesterol and SAS in a rural resident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요섭, 박경수, 나백주, 남해성, 신준호, 손석준, 최진수, 김병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Yo Seop Park, Kyeong Soo Park, Baeg Ju Na, Hae Sung Nam, Jun Ho Shin, Seok Joon Sohn, Jin Su Choi, Byong Woo Kim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hon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박 요 섭(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v),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혈중 콜레스테롤치의 상승은 심혈관계 질환 특히, 관상동맥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불안장애자 등 일부 정신질환자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불안에 관한 자기 기입식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와 혈중 콜레스테롤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1995년 2월 전남 농촌지역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 1100여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하였고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700여명의 설문자료를 얻어 사용가능한 자료를 추출, 620여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불안 측정에는 W.W.K. Zung의 SAS(Self-rating Anxiety Scale)을 사용하였고, 전체와 SAS 각 항목(20문항)의 점수를 더해 50점을 절단점하여 그 이상을 불안군으로 미만을 정상군으로 나누어 세군을 비교 하였다.</p> <p>측정자료는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AS 6.04를 이용하였다.</p>				

3. 연구결과

1) 전체와 정상군에서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불안군에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SAS의 상관계수는 0.45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유의했다($p < 0.01$).

2) 총콜레스테롤을 종속변수로한 다중회귀에서 불안군에서만 SAS가 회귀계수 3.15($p < 0.01$)로 유의했다.

3) 체질량 지수를 통제하고 총 콜레스테롤과 SAS간에 단순회귀에서 전체와 정상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불안군에서 체질량지수가 22(kg/m^2)보다 클 때 유의하였다($p < 0.05$).

4) 정동증상과 신체증상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전체나 정상군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불안군에서만 유의했으며 정동증상이 더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LDL, HDL과 SAS의 상관은 모든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불안군에서는 SAS 와 혈중 총콜레스테롤 간에 양의 상관성이 있으며 혈중 각 지단백과는 어느군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4. 고찰

Niaura(1992) 등은 스트레스(불안 등)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이유에 대해 교감신경의 활성화라고 하였다. 활성화된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솔을 증가시켜 지방조직에 있는 β 수용체를 자극하여 지질대사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몇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불안과 관련이 있음이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서도 불안이나 우울에 관한 자기기입식 등의 설문방법으로 혈중콜레스테롤의 변화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힐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